

AUGUST 2010

8

보내

No.236
ChuncheonNews





표지이야기

8월28일 춘천월드레저 경기대회를 앞두고 봄 조성을 위한 수상레저 체험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지난 8월9~13일까지 5일간 소양2교 인근 호수에서 1일 수상레저문화 체험교실이 열려 참가 어린이들이 바나나보트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CONTENTS

포커스	04	월드레저경기대회 시민 한마음 행사
춘천은 지금	06	공지천이 되살아났다
설문조사	08	춘천시 2010년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 생각
농촌은 지금	10	가산권역 비타민축제
봄내그림	12	샘발 아침뭇, 막국수체험박물관
춘천의 축제	14	춘천닭갈비막국수축제
레저특집①	16	산악인 엄홍길과 산행축제, 시티투어
레저특집②	18	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 종합안내
춘천분지 이어돌기 산행	24	춘천담~삿갓봉~가덕산~퇴골저수지
문화사랑방	26	2010춘천국제연극제, 페스티벌 인 춘천
	28	2010 실레마을 책축제
춘천사람 이야기꽃	30	우두농악보존회, 후평2동 다드미 소리회
	32	시민고발, 이것만은 고칩시다
추억한토막	33	가을 운동회
우리동네소식통	34	
의회소식	35	제8대 춘천시의회 개원
알림마당	38	
광고	40	2010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 개막식

춘천시보 236호(2010년 8월)

발행인 유성춘 | 기획 및 디자인 춘천시청 공보담당관실(250-3229, 250-4169)

창간일 1993년 1월 25일 | 발행일 2010년 8월25일

춘천시보 보내는 <http://www.chuncheon.go.kr> 에서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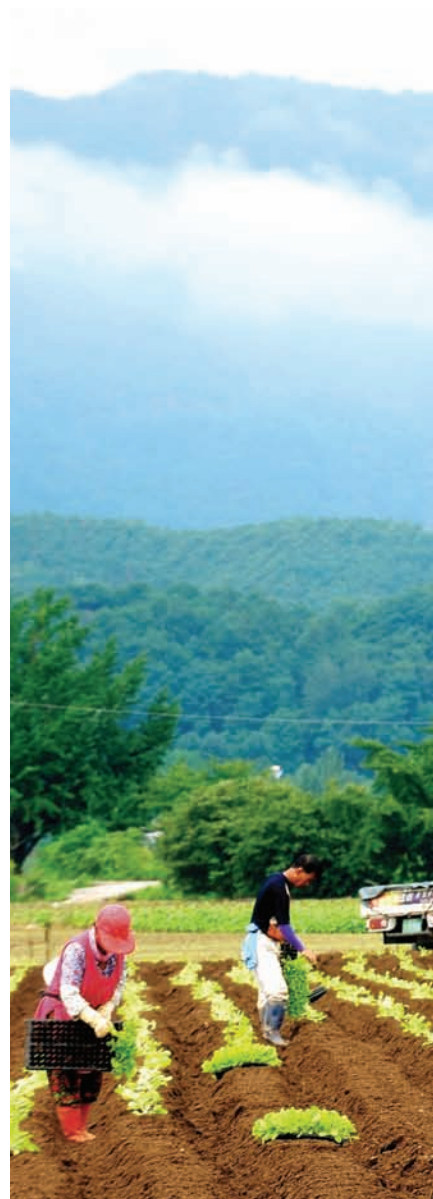


Photo Essay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가을 농사 준비가 한창이다.
감자 수확이 끝난 넓은 밭에 김장용 배추를 심는 손길이 분주하다.
태풍과 국지성 호우가 지나간 들녘은 산자락에 구름이 걸려 목가적인 풍경이다

춘천 서면은 김장용 배추의 주산지로 10월 말부터 출하가 시작된다.
농민들의 마음은 올해는 배추값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하고 트랙터로 갈아엎어야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서면 신매리-





인기가수 강진의 히트곡 '땡벌' 열창



모자이크 어린이집 '어린이난타'

D-30 시민 한마음행사 성황

춘천월드레저 경기대회 30일을 앞둔 지난 7월29일 밤, 대회 성공기원 시민 한마음 행사가 어린이회관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이날 시민들이 야외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자원봉사단 발대식과 함께 축하공연이 곁들여졌고 축포가 여름 밤하늘을 수놓았다.

대회 성공개최 열기가 넘친 현장을 화보로 엮는다.

▶ 행사일정 18-23면



자원봉사단 발대식



댄스스포츠 축하공연

월드레저 경기대회 성공기원 시민열기 뜨거웠다

◀ 인기남성7인조 '인피니트'의 축하공연

춘천미리내색소폰합주단 공연



공지천에 물고기랑 다슬기가 돌아왔어요

대대적 정비로 수질 맑아져 ...
시민 친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열대야를 피해 하천둑에 앉아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



석사교 아래 봄내색소폰동호회의 야간거리공연

“이전에는 물이 더러워서 손도 못 씻었는데 지금은 아주 깨끗해졌어요. 돌다리에 걸터 앉아 발을 담그면 시원하고 얼굴을 닦아도 개운해요. 아이들은 아예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며 물고기와 다슬기도 잡아요.”

청정 산간계곡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 한복판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돌다리에 걸터앉아 발담그고

춘천의 도심하천인 공지천이 시민 친수 휴식공간으로 완전히 자리잡았다.

지난 6월 공사가 마무리된 공지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1지구 교도소·한방병원 앞~석사교 퇴계천 합류점까지 2.2km 구간은 피서를 겸해 산책과 운동을 하는 시민들로 넘치고 있다. 당초 이 구간은 한 쪽에만 자전거 전용 산책로가 있었고 물가도 정비가 안돼 불편이 컸었다. 지금은 다른 한 쪽에도 폭신평탄한 특수재질을 깔 산책로를 만들어 사람들을 분산시켰고 물길을 건너가기 쉽게 돌다리를 곳곳에 설치했다. 잠시 쉴

수 있는 돌의자도 비치했고 다리 밑에는 간이 스탠드가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었다. 거두교 밑에는 ‘그때를 아십니까’주제의 옛 춘천 흑백사진벽화를 만들어 눈길을 끈다. 밤에는 석사교 밑에서 춘천봄내색소폰동호회 회원들의 공연이 인기다. 색소폰 반주에 맞춰 시민 노래자랑도 덩으로 곁들여 시민 한마당 잔치판이 벌어진다. 금계국 비비추 등 꽃길에 만들어졌고 가로등도 설치돼 있다.

공연·운동·피서까지 한꺼번에

공지천의 변신은 뛰니뛰니 해도 깨끗해진 물과 풍부한 수량. 학곡리 신촌리 고은리 등 공지천으로 흘러드는 상류하천을 계속 정비하고 있다. 중간중간에 돌망태 수중보를 만들어 물을 적당히 가뒀다가 내려 보낸다. 수질이 맑아지면서 실제로 고기를 잡아먹는 왜가리 서식이 늘고 낚시 시민도 많아졌다.

특히 어린이들이 그물로 물고기와 다슬기를 잡느라 물속을 첨병첨병대는 모습이 옛 마을 실개천에서 놀



양쪽 산책로를 잇는 돌징검다리에서 휴식하는 가족

던 모습을 회상시킨다. 한여름철에는 해가 진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계곡 피서지로 바뀐다. 가족, 이웃끼리 삼삼오오 발을 담근 채 열대야 무더위를 식힌다.

내년 여름까지 전구간 공사

공지천은 내년 여름이면 2지구 공사를 마쳐 전 구간이 이러한 생태, 친수하천으로 되돌아온다.

2지구는 퇴계천 합류지점~공지천교 간 3.4km로 물가를 정비하고 양쪽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만든다. 남춘천교~효자교 구간 제방이 낮은 곳은 홍수에 대비해 석축을 높인다.

공지천 산책로는 앞으로 교도소~신춘천~고은리까지 연결되어 시내에서 자전거로 고은리까지가 대룡산 등산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지천 상류인 춘천한방병원 맞은편에 조성되는 생태공원 3곳(6,000㎡)도 내년 여름 2지구와 함께 준공된다. 공지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등 250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2월 착공했다.

문의 : 건설과 250-3449

“우리동네 실개천에 버들치가 놀게 한다”

셋강 살리는 1사 1하천운동 전개

‘동네 개천을 반딧불이 날아들고 아이들이 물장구 치던 시냇가로 만든다’

춘천시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각각 춘천의 셋강과 실개천을 맡아 관리하는 ‘1사 1하천운동’이 펼쳐진다.

‘1사 1하천운동’은 각 기관이 1개 하천을 맡아 주민들과 함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사업을 연중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작된다.

참여기관은 춘천시(공지천) 원주지방환경청(약사천) 제2군단(울문천)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동면 지내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지암천) (주)터존IT그룹(강춘천)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천천) 등 7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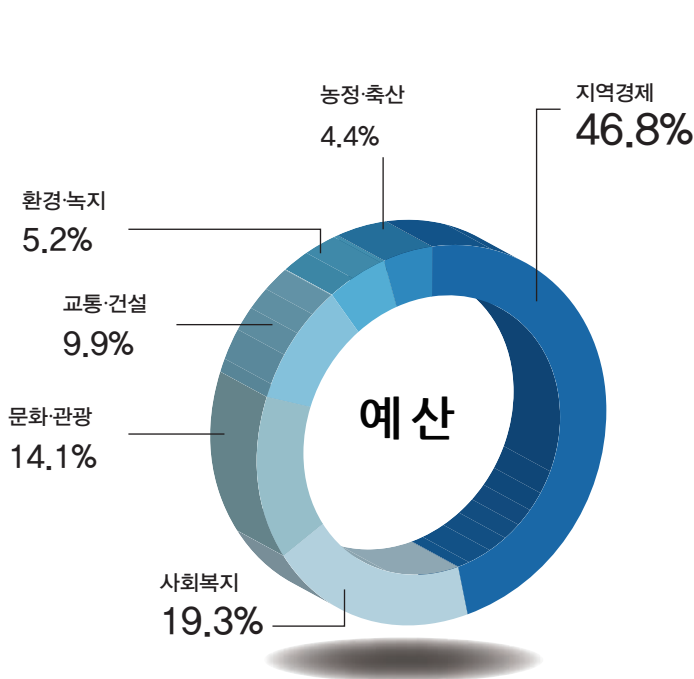
하천살리기 운동은 앞으로 신춘천 팔미천 삼포천 등 춘천의 다른 개천으로 확산되며 연못과 또랑까지 살려낼 계획이다.

이들 7개 기관 및 단체는 지난 7월28일 공지천 야외음악당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사 1하천운동’ 협약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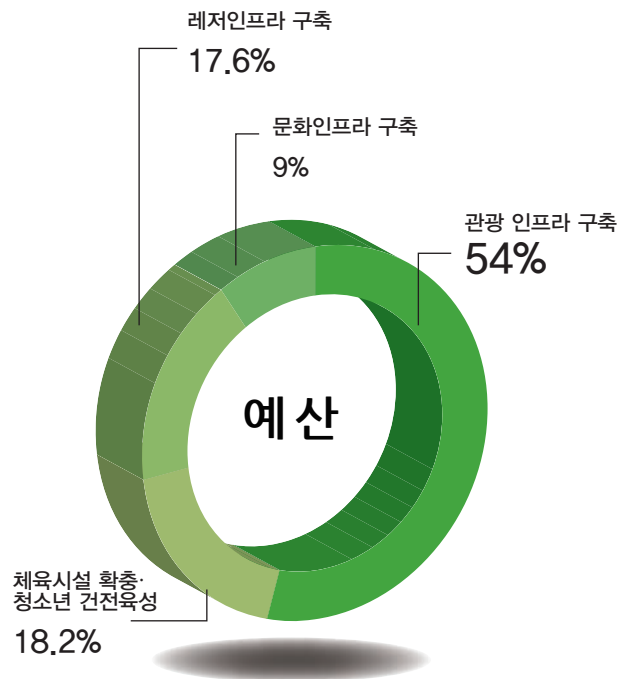
문의 : 환경과 250-4320



시민 절반 “지역경제활성화 집중투자 필요”



집중투자해야 할 사업분야는?



문화·관광 분야 투자의견은?

춘천시민들 중 공무원과 전문관리직, 사무직, 통리장 등의 ‘예산 및 재정현황’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시가 지난 7월1일부터 8월4일까지 35일간 시내 성인남녀 9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예산 및 재정현황’ 관심도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5%가 관심있다고 답했고 32.9%가 무관심했다.

춘천시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을 집중투자해야 할 사업 분야는 지역경제분야가 46.8%로 압도적이었고 사회복지(19.3%) 문화·관광(14.1%) 교통·건설(9.9%) 환경·녹지(5.2%) 농정·축산(4.4%) 순이었다. 이 부문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편차가 커 농정·축산의 경우 읍면지역은 18.3%인 반면에 동지역은 불과 1.6%였다.

지방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는 정부차원 보전(44.1%)과 국세 이양(40.3%)이 다수였고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건축재정(54.2%)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예산 및 재정현황 정보경로는 언론매체(41.3%) 춘천

시보'봄내'(23.6%) 시홈페이지(10.8%) 순이었다. 읍면 지역은 언론매체(30.7%)와 춘천시보'봄내'(29.5%)가 비슷했다.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 중 ▲문화·관광분야는 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54%로 가장 높았고 체육시설확충·청소년건전육성(18.2%) 레저인프라(17.6%) 문화인프라(9%) 순이었다.

▲ 지역경제 분야는 기업유치(33.6%)와 일자리창출(31.5%)이 대다수였고 지식문화사업(17.5%)이 뒤를 이었다.

▲ 도시교통·건설 분야는 고속접근망(27.5%) 주거환경개선(20%)에 이어 도시재정비 등 도시공간(18.4%) 도시경관(13.1%) 교통환경(10.8%) 대중교통(9.5%) 순으로 전 분야에서 고루 나타났다.

▲ 농정·축산 분야는 친환경농업이 35.8%로 가장 높았고 농촌관광활성화(24.6%) 농촌종합개발추진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0.7.1~ 8.4 (35일간)
- 조사대상 : 시 거주 성인 남녀 929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의 $\pm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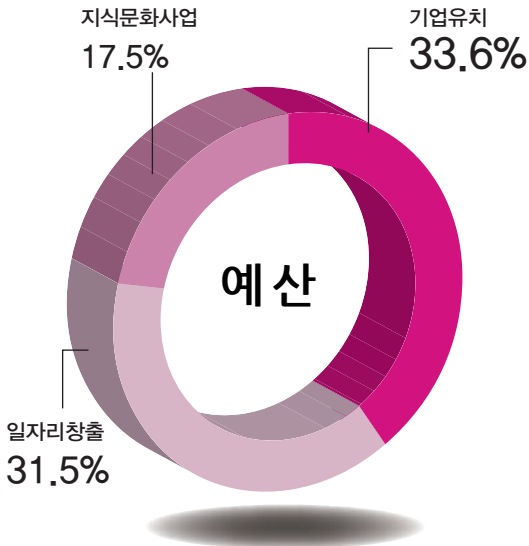
2010년 춘천시 지방재정공시

□ 우리 시의 '09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9,589억원으로, 전년대비 41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730억원이며,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78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4,585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74억원입니다.

□ 국고보조사업 촉진 등을 위한 우리 시의 채무는 693억원이며, 시의 1인당 지방채무는 26만2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09년도에 남부~운교 도로공사 토지매입의 3만5,688건(2,437억원)을 취득하고, 거두리농공단지 분양의 782건(1,181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3조6,514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의 '09년 살림규모를 동종단체와 비교하면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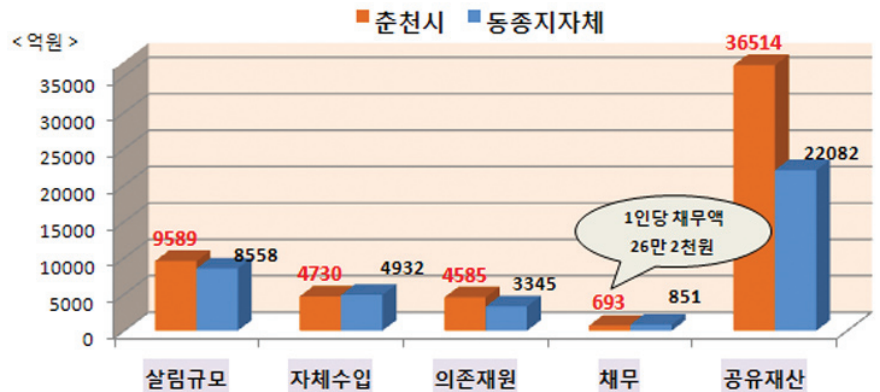
지역 경제 분야 투자 의견은?

(16.4%) 순이었다.

▲ 사회복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어느 한 문항에 치우치지 않고 노인복지(28.2%) 보육서비스(24%) 자활 등 구호관련 서비스(18%) 순으로 전 분야에서 고루 재정이 운용되기를 원했다.

▲ 환경·녹지 분야는 도시숲 등 휴식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로 가장 많고 도심하천 정비사업(19.8%) 폐기물관리 시설투자(19.3%) 안전한 수돗물(16%) 이 뒤를 이었다.

시기를 늦춰도 되는 분야는 환경·녹지(24.2%) 농정·축산(23.6%) 교통·건설(21.8%) 문화·관광(15.5%) 사회복지(8.1%) 지역경제(4.1%) 순으로 집중투자분야와 거의 정반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2\% p$ 다. **보내**



□ 한편, 우리 시의 '09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0.1%이며(전국평균 50.2%),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4%(전국평균 73.3%)입니다.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09년도 최종예산기준
-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예산규모
-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예산규모
-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2009년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동종단체 평균보다 경상비용 비율이 낮고 지방세징수율이 높아 양호한 수준입니다. 또한 지방채무 잔액 지수도 낮아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기획예산과 ☎250-3806〉



동면 지내천의 원두막 방갈로



맨손 송어잡기 체험

농촌문화체험으로 스트레스 날렸다

가산권역 비타민축제 성황리에 마쳐

농촌문화체험을 즐기는 노 스트레스(No Stress) 건강축제인 춘천비타민축제가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건강을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

지난 7월 21일부터 5일간 가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주최로 동면 지내1리에서 열린 비타민축제는 전국 최초로 건강을 주제로 우리 몸의 필

수요소인 비타민A~E를 테마로 선정해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비타민 및 먹을거리체험을 비롯해 생태체험존, 전통문화체험존, 농경문화체험존, 소나무생태체험존 등이 인기를 끌었다.

지내천 생태체험존에서는 물놀이와 맨손송어잡기, 소달구지·트랙터 타기 체험이 있었고 전통문화체험존에서는 비타민 소금 만들기, 짚풀공예 체험이 곁들여졌다.

비타민 먹거리 체험도 인기

농경문화체험존에서는 농촌마을과 향토사료관을 둘러보는 이벤트가 있었고 소나무생태 체험존에서는 숲생태체험과 소나무 명상 체조길 등반이 이어졌다.

먹거리 체험으로는 올챙이국수, 비타민비빔밥, 국밥, 묵사발과 함께 비타민 팔빙수로 더위를 식혔고, 옥수수 빨리먹기 등 비타민옥수수 체험도 인기를 끌었다.

주최측 집계로 올 행사에 하루 1만명씩 연 5만여명이 찾아 북새통을 이뤘다.

비타민축제로 지내천이 알려지면서 행사가 끝난 후에도 하루 500여명이 지내천을 찾아 지역상경기에 도움을 줬다.

축제를 통한 농촌 경기부양효과

이번 축제의 의의는 농촌이 어려운 가운데 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주민들의 경기부양 효과를 노린 점이다.

실제로 동면 지내 1~3리와 월곡리 등 가산권역 4개 마을의 생산 농산물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동이 났고 주변 식당의 매출도 크게 늘었다.

이 마을은 지난 해 항암과 항염효과는 물론 비타민 함량이 사과보다 200배 이상 많아 최근 웰빙 보조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비타민나무를 주제로 축제를 열었다.

앞으로 가을과 겨울 행사도 준비하는 등 분기별로 상설 축제장을 만들어 웰빙하면 지내리마을을 찾도록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정연대 가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은 “도심의 대규모 관광·문화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농촌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체험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나 도농교류가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도 올리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의 : 241-6936, 011-361-1567

춘천의 명품 복숭아 수아르·소양강 농가에서 직접 살 수 있어요

8월말에서 9월초 사이는 복숭아가 제철이다.

올해 복숭아는 지난 겨울 강추위로 나무가 많이 얼어 죽은데다 올 봄 이상 저온현상으로 복사꽃이 제대로 피질 않아 수확량이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더 값싸고 맛있는 복숭아가 간절해진다.

시민들은 춘천의 명품 ‘수아르’나 ‘소양강’ 복숭아를 싸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다. 본인도 먹어야 하고 선물도 해야 하지만 춘천 생산품만을 취급하는 상설 특판장이 없다.

시장이나 마트보다는 현지 농가를 찾아 구경도 하면서 맛도 보고 사 가는게 좋을 듯 싶다. 그러나 춘천의 복숭아 농가는 약 300여곳. 어디로 가야 할 지 막막하다. 농가를 소개 받으려면 신북읍 유포리 춘천복숭아작목반연합회(회장 이재학 011-9797-9753)와 동내면 사암리 신동복숭아작목반연합회(회장 지찬주 010-6377-1471)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신동농협에서는 복숭아 성수기때 며칠간 거두지점 하나로마트에서 특판행사를 갖는다.

올해는 8월16일부터 22일까지 관측행사가 끝나 내년을 예약해야 될 듯. 일부 복숭아 농가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임시판매장을 설치해 팔기도 한다.



신북 유포리 농가에서 복숭아를 선별 포장하고 있다.

샘밭 그 촉촉한 땅기운이 나를 키웠다

박계순 (소설가)

샘밭, 정직하고 질박한 이름.

삼한골 수리봉 무지골 마적산을 뒤에 두르고 저 아래 시가지의 섬 같은 봉의산을 그윽이 굽어보는 드넓은 벌. 물의 이미지 탓인가 지명만 발음해도 마음이 촉촉해진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그래서 모성을 떠올리게 한다. 한결같은 모성처럼 샘밭은 늘 여전하다. 과거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향이 옛 모습 그대로 거기 있다는 건 복 중의 복이다.

먼 산 밑 마을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시야가 시원하면서도 나보다 낮아 보여 겸손한 땅. 비포장 길과 초가지붕만 바뀌었을 뿐 몸통 어느 한군데 훼손당하지 않은 땅. 태고의 숨결을 간직하고 원초적 감성을 드러내주는 땅.

어린 시절 샘밭은 내게 세상의 전부였다. 샘밭에서 자연을 알고 사람을 알고 그리움 외로움과도 친교를 맺었다. 아침뭇, 버들개, 장본, 점말, 바리미, 동녘벌, 샘두럭, 장거리, 사랑말, 도지거리, 오수물 그 어디든 내 발길이 닿지 않은 동네는 없다.

변화를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는 시대에 샘밭 사람들은 옛 샘밭장을 복원해 장터의 질편한 정서를 되살려냈다. 소양강댐으로 향하는 도로변에 막국수집들이 즐비한 모습도 물 좋고 인심 후덕한 샘밭다움이다.

“정기어린 몸통
어느 한군데 훼손당하지
않은 땅. 태고의 숨결을
간직하고 원초적 감성을
드러내주는 땅”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거대하고 고요한 아침뭇의 자태

샘밭에 아침뭇이 있다. 아침에 생겼다는 권선징악적 전설을 간직한 아침뭇은 다분히 몽환적이어서 시간의 경계를 허물어버린다.

전생을 거쳐 태고까지 거스르는 환각에 빠뜨리기도 한다. 아침뭇을 보며 자란 나는 60대에 이르면서도 그곳에 가기만 하면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마을과 마을의 경계로 길게 누워있는 야산을 에두르고 높다란 독 안에 자신을 감춘 거대하면서도 고요한 아침뭇의 자태는 독길을 올라온 사람으로 하여금 우와! 탄성을 내지르게 만든다.

뭇가에 앉으면 하늘과 산과 뭇물만 보인다. 간혹 흰 새들이 청록의 수면 위로 낮게 내려앉으며 물고기를 낚아채는 동작만 없다면 정물화 속



마적산과 수리봉아래 펼쳐진 아침뭇 전경

에 갇힌 듯하다. 때때로 이 고요한 못물도 제 감정을 안개의 춤사위로 토해낸다. 그 환상의 춤에 홀리면 춤판에 몸을 던지고 싶은 충동이 일곤 한다. 꽃분이의 혼령이 유혹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꽃다운 나이에 두 남자 틈바구니에서 갈등하다 아침뭇에 빠져죽은 꽃분이는 내가 본 최초의 주검이었고 최초의 아름다움이었다. 할머니 치마폭 뒤에서 잠깐 본, 못물에서 건져 올린 꽃분이의 하얀 얼굴과 탐스런 머리채는 그 옆에서 나부끼던 갈대와 함께 내 가슴에 사진으로 박혀버렸다.

우리 집 논물을 댔던 아침뭇을 우리 소유인 줄 착각했던 어린 시절, 거기 빠져 죽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분이의 죽음은 내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지금도 꽃분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아침뭇은 또 다른 의미에서 여전히 내꺼다.

막국수체험박물관, 국수들에 그 옛날이

막국수의 재료인 메밀은 원래 구황작물이었다. 홍수난 들녘 강변에 그냥 씨를 뿌려두면 저절로 자라고 꽃피고 씨앗 생겨나는 특성 때문에 메밀은 산이 많은 강원도의 척박한 땅에 흔했다.

이름이 알려진 막국수집은 대부분 소양강댐 아래 샘밭에 흠어져 있다. 그래서 막국수체험박물관이 샘밭영역인 샘두럭(산천리)에 지어졌을 것이다. 건물 자체도 멋스럽다. 둥근 구조물 지붕은 대형 국수들과 가마

솥 모형으로 독특한 조형미를 발산한다.

메밀은 복잡한 도정과정 없이 맷돌로 타서 절구에 찼고 체로 걸러내면 거친 가루가 생겨난다. 그 가루를 반죽해 국수틀로 뽑아 허기를 달랬다던 막국수가 별미가 되더니 요즘엔 웰빙 먹거리로 대접받는다.

막국수체험박물관 국수틀 앞에서 나는 50여년 전의 초가지붕 막국수집을 떠올렸다.

할머니 치마꼬리에 붙어 고개도 넘고 서낭당도 지나면 나타나던 집이다.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따라나서는 내게 절대로 남기지 않고 내 몫의 막국수를 다 먹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곤 했다. 그 때의 내게 막국수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다. 나는 다만 그곳에 가고 싶어 무조건 고개를 꼬덕이며 손가락을 걸었을 뿐이다.

그곳의 광경은 기이했다. 아랫목이 꺼멓게 탄 방바닥. 부엌과 통한 문으로 보이던 국수틀. 거기 대롱대롱 매달린 사람. 그 사람의 힘쓰는 표정. 틀에서 빠져나오던 국수가닥. 김이 자욱한 가마솥. 시뻘건 아궁이. 나는 매번 그 광경에 넋을 빼앗기곤 했다.

맛없다고 거무튀튀한 국수가닥을 공중에 들어올리며 투정부리던 예전과 달리 막국수는 이제 즐겨 찾는 음식이 됐다.

전문가들이 밝혀낸 메밀 성분의 우수성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구수하고 촌스러운 그 맛이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기억 때문일 것이다.

북내

춘천 **닭갈비** **막국수** 축제
2010 CHUNCHEON DAKGALBI & MAKUKSU FESTIVAL

8.28~9.5 송암스포츠타운



지난 해 막국수·닭갈비 축제장의 인파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맛 향연

9개국 27개 닭·면요리 맛 보러 오세요

중국 닭꼬치·일본 라멘·인도 탄두리치킨

베트남 쌀국수·터키 닭고기케밥

러시아와 스웨덴 샤슬릭·독일 소시지·브라질 바비큐

올해 춘천닭갈비·막국수축제가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맛의 향연’슬로건을 내걸고 펼쳐진다.

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와 일정을 같이 하고 행사장도 송암스포츠타운으로 옮긴 이번 축제는 세계 각국의 대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행사도 다양하게 열린다.

닭갈비와 막국수의 세계화를 위해 마련한 세계음식 관에서는 행사기간 내내 9개국 27개 메뉴가 자국 전통요리사 솜씨로 유료로 선보인다.

중국 닭꼬치와 일본 라멘, 인도 탄두리 치킨, 베트남 쌀국수, 터키 닭고기 케밥, 스웨덴과 러시아의 샤슬릭(양고기, 닭고기), 독일 전통소시지, 브라질 바비큐 등이 주메뉴다.

한편 8월 28일 개막식 이벤트로 7개국 닭·면요리 5,000인분이 무료로 제공된다. 9월2~5일에는 신라, 롯데, 인터컨티넨탈호텔 등 국내 최고급 호텔의 유명 셰프가 참가하는 세계요리 시연 및 시식회가 열려 입맛을 돋구게 한다.



닭갈비요리 경연대회

중국 면요리 달인의 묘기공연 설레게 해

8월29~31일에는 세계 면요리 기예자 초청 시범 공연이 열려 영화에서나 볼직한 중국 면요리 달인의 기상천외한 묘기가 눈을 즐겁게 한다.

매년 관광객들의 최고 상품인 100인분 닭갈비 막국수 무료시식이 올해도 행사기간 내내 하루 한차례씩 어김없이 찾아온다.

8월30일 밤 8시에는 춘천 시민이 참가하는 가요제가 열려 흥취를 더한다.

문의 : 축제 조직위원회 250-4347~8



유람선 타고 붕어섬 관광 메밀꽃밭서 추억 담아요

축제기간 새로운 볼거리

올 춘천닭갈비·막국수축제에 새로운 볼거리가 선보인다.

축제기간인 9일간 메밀꽃밭이 조성된 의암호 붕어섬을 둘러보는 유람선이 운행된다.

볼거리를 만들기위해 춘천막국수협회 회원들이 19만여㎡의 대규모 메밀꽃밭 조성작업을 마쳤다. 유람선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하루 5차례 운행하며 선박은 중도를 운행하는 맥도호다.

유람선 운항 코스는 송암스포츠타운 축제장을 출발해 붕어섬과 하중도 일대를 둘러본 뒤 붕어섬에 관광객을 내려 준다.

관광객들은 붕어섬에 펼쳐진 메밀꽃밭의 풍광을 마음껏 감상한 뒤 시간에 맞춰 배를 타고 나오면 된다. 요금은 어른 6,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4,000원.

그동안 모터보트 외에는 붕어섬에 들어갈 수도, 붕어섬과 하중도 일대를 둘러볼 수도 없었기에 이번 유람선 운항은 춘천시민들에게도 인기를 끌 전망이다. 한편 8월29일에는 붕어섬 메밀꽃밭에서 제1회 춘천 메밀꽃 전국 세미누드사진 촬영대회가 열린다.

문의 : 축제조직위원회 250-4347~8





전국 산행축제 8월29일 향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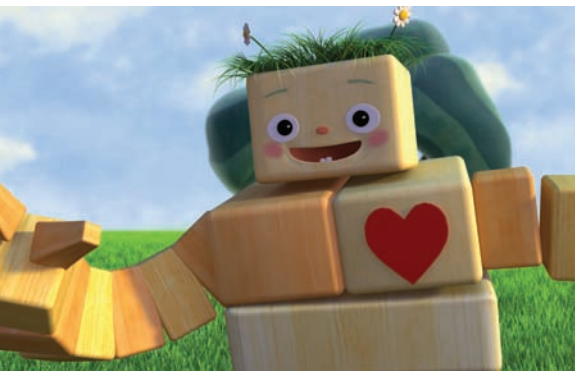
‘엄홍길대장과 멋진 산행 어때요’

제2회 엄홍길대장과 함께 하는 전국 산행축제가 8월29일(일요일) 열린다. 엄 대장은 춘천월드레저 경기대회 홍보대사로 지난 해 프레 대회때 첫 번째 산행에 이어 올해가 2번째다.

이날 오전 9시 송암스포츠타운 상설무대(닭갈비·막국수 축제장)에 집결해 10시 등반을 시작한다. 등반 코스는 스포츠타운~향로산 일 원이며 2시간 등산 후 축제장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다. 참가자격은 제한 없으나 초등학교 이하의 보호자 동행 시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 비는 1만원이며 신청은 8월25일까지다. 참가신청은 춘천시산악연맹 홈페이지(문의 : 264-2750)나 팩스(264-1950)로 하면 된다. 시상은 자연보호상, 트리플 행운상, 원정상, 최다참가상, 최고령상, 최연소상 등이며 개인과 단체에 푸짐한 상품이 주어진다.

춘천산(産) 애니메이션 3D영화제 · 8월27일~9월5일

레저경기도 보고, 3D 만화영화도 즐기고...



2010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 기간 중에 3D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8월27일~9월5일까지 춘천CGV영화관에서 애니메이션 3D영화제를 연다.

이번 영화제는 2010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기간에 열린다. 상영작은 춘천에서 제작한 3D영화로 프랑스 MIP TV의 그랑프리 수상작인 ‘파들리 팜’과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구름빵’, 공룡시리즈 ‘알도독 공룡 랩터’, 장편 애니메이션 ‘날으는 돼지 해적 마테오’ 등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30명 이상 단체 관람하면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조기 신청자에게는 애니메이션박물관 무료입장권도 줄 예정이다.

자세한 상영시간과 관람료는 ☎269-7733(강원정보문화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 (위) 프랑스 MIP TV 그랑프리 수상작 ‘파들리 팜’
(아래) 공룡만화영화 ‘알도독 공룡 랩터’



춘천 곳곳 시티투어로 누벼보세요

월드레저 경기대회와 닭갈비막국수축제기간 특별 운행

춘천월드레저 경기대회와 춘천닭갈비막국수축제 기간 기차와 버스를 이용한 시티투어 상품이 운영된다.

8월28일~9월5일 대회 및 축제기간에 매일 수도권 방문객 유치를 위해 춘천~서울 간 기차와 버스 특별 시티투어와 춘천 만깃호가 운행된다.

기차투어는 청량리역을 출발, 남춘천역에 도착한 뒤 송암스포츠타운 축제장~소양강댐~소양강치녀상~김유정문학촌을 거쳐 김유정역에서 상경하는 당일 코스다.

이용요금은 성인 1만9,000원, 경로 1만7,000원, 어린이 1만5,000원이다.

버스타우는 광화문을 출발, 잠실을 거쳐 축제장을 둘러본 뒤 소양강댐~소양강치녀상~김유정문학촌

관광을 하고 상경하는 코스다. 성인과 경로, 어린이 모두 1만5,000원이다.

서울을 찾은 일본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버스타우 상품인 춘천 만깃호는 축제 기간 중 수, 금, 일요일에 축제장을 경유토록 코스를 조정한다.

서울 롯데호텔을 출발해 남이섬~공지천~드라마갤러리~축제장~명동을 관광한 뒤 상경한다. 이용요금은 5,800엔(한화 약 7만6,000원).

8월31일에는 레저총회 참가자 시티투어로 김유정문학촌~강원도립화목원~축제장을 운행한다.

춘천시는 여행사별로 레저경기대회와 닭갈비막국수축제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모객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있다. **보내**

문의 : 관광과 250-3068

김유정 문학촌



춘천·가평 경계 능선의 억새밭, 볼만하구나!

전 상국(소설가·김유정문학촌장)



삿갓봉 골짜기의 청정계곡

삿갓봉 골짜기의 물소리

경기도 화악산(1468.4m) 줄기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내린 가덕산 몽덕산 북배산 계관산 등은 동서 양쪽으로 모두 골이 깊어 물이 많다.

춘천댐 매운탕골에서 치오르는 삿갓봉(716m)도 꽤 깊은 골짜기까지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며 산행을 할 수 있어 여름 산행으로는 그만이다.

삿갓봉 여름 산행만은 매운탕 골짜기 그 안쪽 은혜원이란 작은 기도원 조금 위 갈래 길에서 바른쪽 길로 정상(왼쪽 길로 올라도 1.8km, 거리가 같다)에 올라갔다가 그 반대쪽으로 내려와 계곡물에 몸을 담았다가 이열치열 매운탕 먹고 돌아오면 딱 좋은 하루 코스.

매운탕 골목 안쪽 산불감시초소 옆에 삿갓봉 2.5km 가덕산 5km 북배산 7.5km란 첫 이정표. 삿갓봉으로 가파르게 치오르기 직전의 안부에 정상까지 0.9km라는 이정표가 보인다. 이 지점부터 시작되는 오월리 수렵장의 철책만 따라 오르다보면 정상이다. 지금은 폐쇄된 상태의 흉물 철책 밑으로는 멧돼지 떼가 넘나든 통로가 여러 곳 보인다.

삿갓봉 정상을 향한 첫 번째 계단을 조금 오른 지점에 고목(참나무과는 아닌 듯)이 높이 15m 둘레 4m의 위용으로 서 있다. 이 정도면 신목으로 우러러 볼 만하다.

삿갓봉은 내가 그 정상이요, 그렇게 뽐



가덕산에서 북배산까지 펼쳐진 억새밭

내는 기세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마치 수더분한 마을 아주머니의 펴퍼짐한 젓가슴 같은 모습으로 등산객을 맞는다.

그러나 산불감시탑이 서 있는 근처에서 좌우사방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춘천 분지의 조망만은 결코 이만한 데가 더 없을 터.

탁 트인 시야에 화악산 용화산에서부터 동남쪽으로 대룡산 금병산 삼악산 등 춘천분지를 감싸고 펼쳐지는 풍경이 그대로 열두 폭 병풍이라 발길이 쉬 떨어지지 않는다.

삿갓봉 정상에서 조금 내려오면 곧바로 오월리 쪽에서 서면 서상리 퇴골 저수지에 이르는 임도가 나타나는데 가덕산 산행은 그 임도가 아닌 폐쇄된 철문 옆 나무 널판 계단으로 올라가 다시 이어지는 철책을 따라가야 한다.

춘천분지의 별천지, 퇴골 저수지

가덕산(858.5m)은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의 경계능선을 이루며 서남쪽으로 등뼈처럼 뻗어내렸다. 가덕산 능선 산행의 장관은 몽덕산부터 시작해 북배산 계관산까지 20m의 너비로 만리장성처럼 펼쳐진 방화선 그 억새밭이다.

능선 삼림을 깡그리 베어내고 방화선을 만든 것이지

만 막상 그 현장에 서면 키를 넘는 그 억새를 모두 베어낸다 해도 그것이 산불 번짐을 막는 방화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가덕산부터는 가평쪽에서 오르는 등산로와 그 이정표가 잘 정비돼 있지만 춘천 쪽은 다니던 길마저 찾기가 어려워 이정표 정비가 절실하다.

아니나 다를까 20여년 전 기억을 더듬어 북배산을 1km 정도 남긴 지점의 수백 년 된 소사나무 고목에서 광산골이라고도 하는 퇴골 저수지쪽으로 빠지는 길을 더듬어 나섰지만 임도를 뒹그라 등산로가 거의 사라져 계곡 길을 찾지 못한 채 임도 4.5km를 타고 내려오는 여름 오후의 그 재미없는 하산 길의 따분한 발걸음.

가덕산 소사나무 고목에서 왼쪽 길을 더듬어 임도까지 내려온 뒤 곧바로 옛 광산골로 내려가는 계곡 길을 조심스레 찾지만 하면 퇴골 오리구이 식당 마을까지 1시간 반쯤 걸리는 거리.

삿갓봉→가덕산 소사나무 고목→퇴골로 제대로 빠지기만 한다면 춘천분지의 또 다른 숨어 있는 별천지 퇴골저수지를 만나는 즐거움을 얻게 될 터. 수리취(떡취)를 뜯는 느린 걸음으로 약 6시간 소요.

산행코스문의 : 010-3617-4881

다음 산행은 퇴골~북배산~명월리 코스입니다.

춘천국제연극제 9월1~5일

4개 극장 4색 열전

6개국 15개팀 봄내극장 등서 열려

2010춘천국제연극제가 월드레저 경기대회 기간 중인 9월1일부터 5일까지 시내 4개 극장에서 4색 연극 열전으로 열린다. 각 극장마다 주제 컬러와 컨셉을 정

했다. 공식 초청작은 9월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며, 주제색은 환경을 상징하는 녹색이다. 레저 경기대회 참가 외국인들을 겨냥해 황순원 원작 ‘왕모래’를 올린다. 영문자막도 준비된다.

한림대 일송아트홀은 젊음과 신뢰를 상징하는 파란색을 주제색으로,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올해 개관한 축제극장 몸짓에서는 연극의 고전과 현대를 만나며 주제색은 열정 에너지 사랑을 상징하는 빨간색이다. 춘천의 대표 소극장 봄내극장은 따뜻함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국내외 심야공연을 선보인다. 참가극단은 일본, 러시아, 폴란드, 체코, 중국 등 총 6개국 15개팀이다.

주최측은 국내외 레저인과 함께 다양한 장소, 시간대에 연극을 보며 춘천이 축제의 열기와 예술의 매력에 빠져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막식은 9월1일 오후 7시30분 브라운 5번가.

문의 : 춘천국제연극제 사무국 241-4345



장소 일자		9월 1일(수)	9월 2일(목)	9월 3일(금)	9월 4일(토)	9월 5일(일)
춘천문화 예술회관 (Green)	15:00				정가악회 〈왕모래〉	
	19:30					
몸짓극장(Red)	14:00					바닥소리 〈달들의 꿈날다〉
	17:00					
	19:30		애플씨어터〈쑤귀신〉	극단물결 〈밀바닥에서〉		
봄내극장 (Yellow)	21:30				러시아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15:00					중국〈낭만시대〉
	19:00		극단마실 〈통닭, 그녀들의 이야기〉			
일송아트홀 (Blue)	22:00	창작그룹가족〈십〉	극단마실 〈통닭, 그녀들의 이야기〉	폴란드〈왕국〉	체코 〈Hotel between two world〉	
	11:00	체험예술공간 꽃밭 〈종이창문〉				
	19:30		명품극단 〈관촌수필-옹점이를 찾습니다〉	일본 사쿠라 전선 〈달〉	마루컴퍼니 〈내가가장예뻐있을때〉	
브라운5번가		개막식(19:30)	페스티벌 스페이스 (게릴라공연)			



‘페스티벌 인 춘천’ 9월2~5일 삼천동 수변공원

“여름밤 별빛아래 텐트치고 와~ 밴드공연에 영화까지”

캠핑과 예술이 함께하는 신개념축제

호숫가에 텐트를 치고 물안개를 바라보며 음악을 듣는다. 춘천의 다양한 문화적 감성을 살린 이색 축제인 ‘페스티벌 인 춘천’이 9월2~5일 삼천동 중도선착장 수변공원에서 열린다.

수변공원 캠핑장에서 숙박을 하며 어린이회관 야외무대와 잔디밭 무대 등에서 열리는 공연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기는 레저와 예술이 결합된 축제다.

매일 저녁 7시, 블루스 보컬리스트 ‘강허달림’과 스카밴드 ‘킹스턴 루디스카’ 가수 ‘강산에’ 등 국내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이어진다.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무대가 열리고 문화상품을 사고 파는 프리마켓, 프린지무대, 낭만카페, 별밤영화관도 운영된다. 한 여름 폭염과 열대야에 지쳤던 심신을 달래 볼 절호의 기회다.

문의 : 262-1350

레저대회와 함께 즐기는 공연

춘천월드레저 경기대회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가 풍성하다.

제8회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가 8월28~2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춘천농공고 기계공고 봉의고 사대부고 등 춘천지역 고교 4개팀을 포함해 전국 초·중·고 합주단 35개팀이 참가한다. 대상팀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미8군 군악대와 관동대 윈드오케스트라가 특별연주한다.

제2회 전국생활음악인페스티벌이 8월28~29일 어린이회관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춘천미리내색소폰합주단 등 전국 20개 아마추어 음악동호회 팀이 참가해 마음껏 끼를 발산한다.

‘**春 1,000인 뮤직 하모니**’가 8월29일 오후6시 어린이회관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춘천시민 1,000명이 각자의 악기로 합주하는 이색 음악 이벤트로 음악동호인들의 관심이 높다.

춘천전국어린이합창경연대회가 9월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성림초교 등 춘천 4개팀을 포함해 전국 25개팀이 참가한다.

문의 : 음악협회 춘천시지부 244-8844

예술파티 난장판이 8월28일 저녁8시 축제극장 몸짓에서 열린다.

이 공연은 와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컨셉의 파티이다. 어린이 및 청소년은 보호자 입장 시 가능하다.

문의 : 251-0531





2010

실
레
마
을

책
축
제

9
월
4
~
5
일

책을 주제로 한 특색있는 축제 돋보여

옛 책뭉기, 사방치기, 실레마을 그리기, 낭송대회, 주막거리 등 다양

김유정의 실레마을에서 한바탕 잔치마당이 펼쳐진다. ‘2010 실레마을 책축제’는 책을 주제로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책 문화축제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김유정문학촌과 실레마을을 무대로 9월4~5일 열리는 축제의 자리엔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해 온 가족이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춘천시립교향악단과 춘천국립국악원, 동화나라 어린이집 원생들의 신명나는 공연을 시작으로 12시간 탁본뜨기, 옛 책 뭉기, 계란꾸러미 만들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우릴 기다린다.

제기차기, 사방치기, 고무줄놀이 등 놀이마당이 펼쳐지고, 정자와 평상엔 올망졸망 모여들 아이들을 위해 할머니 동화구연가가 채비를 마쳤다. ‘책 나눔 코너’와 ‘책 사랑방’도 운영된다.

‘작가와의 만남’은 소설가인 전상국 김유정문학촌장, 최규순 동화작가와 함께 하고, 금병산 등산로를 걸어보는 ‘김유정 문학여행’은 강원대 유인순 교수의 해설이 있어 더욱 유익하다. 구연대회와 실레마을 그리기, 낭송대회, 노래자랑도 열린다. 주막거리에선 잔치국수와 동동주, 부추전을 맛볼 수 있고 싱싱한 농산물도 판매한다.

문의 : 250-3575 한영숙 명예시민기자

홈스테이하며, 춘천과 제주문화 몸에 익혔어요

춘천-제주 탐라도서관 어린이회원 상호방문

춘천시립도서관은 자매결연을 맺은 제주시 탐라도서관과 어린이회원 방문교류행사를 8월2일부터 5일까지 춘천에서 가졌다. 제주어린이 18명이 춘천어린이들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춘천지방의 문화와 풍습을 체험해보는 값진 기회를 가졌다. 또 전차부대를 방문하여 쉽게 접할 수 없는 전차를 타보는 행운을 얻기도 하였다.

김대훈(제주 신광초교 5학년)군과 제주도를 다녀 온 장은서(성림초교 5학년)양은 “서로다른 문화, 풍습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최영숙 명예시민기자



한여름밤 이수일과 심순애가 만났다

연극 ‘꿈을 실은 황금마차’ 서면 방동1리 찾아

한 여름 밤 서면 방동1리 마을회관에서 ‘이수일과 심순애’ 연극이 열렸다. 축제하는 사람들 ‘이락’이 마련한 ‘꿈을 실은 황금마차’는 이번에 서면 방동1리 마을회관에서 열렸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수일과 심순애’, 아동에게 유익한 ‘진짜 이솝이야기’, 모두가 볼 수 있는 ‘뽀에로 익살쇼’,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날개를 달아주세요’ 등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방동리 주민들에게 좋은 시간을 선사했다.

김영길 명예시민기자



칼럼

소양강의 ‘낙화뽀’이 그림다

‘풀벌레 합창이 냇물소리로 흐르던 들판에 개뽀벌레 불빛이 날아다니고, 푸른 하늘 북판엔 은하수가 흐르고 한여름 밤의 광활한 무대엔 순간적으로 별뽀벌레 떨어져 내렸다.’ 기억 속의 한여름 밤은 언제나 청량하다. 그 시절도 모깃불 연기 속에 부채 부치며 무더운 여름밤을 맞이했었을 텐데, 해마다 찾아오는 여름은 갈수록 건디기 힘든 가마솥더위다.

물론 푸른 바람이 숨길을 터주는 맑은 계곡은 도심보다 3~4도 낮은 피서지로 사람들을 부르지만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춘천은 예부터 강가에서 먹을 감고 천렵을 하며, 불꽃놀이를 즐겼던 곳. 소양강은 ‘춘천의 산수가 다 좋은데 / 그 중의 9 할은 소양강 경계일세’라고 조선의 선비 이주가 찬탄했던 곳. 택리지의 이중환이 강을 낀 마을 중 대동강이 있는 평양 다음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꼽았던 곳이 춘천이다. 이 소양강에 음력 7월 16일에는 낙화(落花)뽀이 성대히 펼쳐졌다고 한다. 강에 배를 모아 놓고 배에 등불을 달아 온 강이 불바다가 되게 하는 놀이로 소양강과 더불어 강릉 경포대에서도 낙화뽀 행사를 했다고 한다. 뽀으로 호반의 도시가 되면서 오가던 뽀길도 끊겼지만 춘천은 여전히 물의 도시다. 한여름 밤의 낙화뽀는 사라졌지만, 춘천의 여름은 축제의 연속이다. 축제에는 함께 어울려 ‘미치지 않으면’ 축제가 아니라고 한다. 구경꾼이 아니라 축제에 참여하고, 축제 속으로 들어갈 때 즐길 수 있다. 해마다 여름이면 닭갈비막국수 축제를 비롯, 춘천 아트 페스티벌, 국제인형극제, 국제연극제 등이 한여름 밤을 수 놓는다. 지역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등잔밑이 어둡다고 막상 찾아가 어울리는 게 쉽지는 않다. 모처럼 8월 초 춘천 아트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 공연을 보러 갔다. 어린이 회관 야외무대에서 선 보인 현대 춤과 전통 뽀뽀기춤은 멋진 선물이었다. 더구나 수준 높은 공연들이 무료관람이었음에도 빈자리가 조금 있었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만들고 즐기는 전통축제는 정체성을 찾고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양강을 밝히던 낙화뽀를 이 여름 밤 다시 보고 싶다.

신용자 (시보편집위원 · 문화커뮤니티 금토 이사)



“신명난 소리에 막힌 가슴 뽕 뚫려요”

우두농악보존회 레저대회 공연 앞두고 구슬땀

‘쿵덕~ 쿵더쿵~~’

한여름 밤 무더위 속에 구슬땀을 흘리며 농악연습에 열심인 60~70대의 노인들이 있다. 60여명으로 구성된 우두농악보존회 회원들로 ‘2010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와 소양제 공연을 앞두고 밤늦도록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우두농악보존회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운영난으로 한때 주춤했다가 지난 93년 현재의 단장인 차금석(62)씨가 사재를 들여 악기를 구입하고 흩어진 회원을 다시 모은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우두농악보존회는 다듬어진 실력으로 소양제를 비롯한 춘천의 커다란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출

연하고 있으며 도민속경연대회에서 3차례나 입상하기도 했다. 농악 뿐 아니라 무용부와 민요부까지 운영하고 있어 참여할 수 있는 문이 많이 열려 있다. 손병진(75) 회장은 “농악은 우리 민족의 혼이고 디딤돌인데 젊은이들이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주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10년이 넘게 회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정희자(66) 씨는 “농악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친구를 얻었고 스트레스와 우울증도 해소돼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고 자랑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잊고 연습에 여념이 없는 우두농악보존회 회원들의 멋진 공연이 기대된다. 문의 : 010-4224-0444 김영일 명예시민기자



“아리랑에 다드미 장단 어깨가 들썩”

후평2동 ‘다드미 소리회’ 전국대회 앞두고 맹연습

무더위가 한창인 8월의 한 낮, 후평2동 주민자치센터 ‘열린 사랑방’에서 흘러나오는 아리랑의 구성진 소리와 장고소리에 더위마저 녹아내린다. 추임새 소리가 더없이 정겹다. 한 가락 한 가락 주거니 받거니 어깨가 절로 들썩인다. 소리의 주인공은 지난 달 열린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후평2동의 ‘다드미 소리회’ 30여명의 회원들이다.

대상수상은 아리랑, 한오백년의 구성진 소리에 다드미, 북, 장고, 물동이 등을 더해 얻어낸 성과였다. 2~3년 전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사랑방에 모여

소리를 하다보니 리듬이나 가락을 실어줄 도구가 필요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씩 모양새를 갖추게 된 것이 다드미와 물동이, 그리고 북, 장고였다고.

대부분이 5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으로 지나온 세월의 깊이만큼 배우는 열정 또한 대단하다. 홍영숙(79) 할머니는 “함께 한다는 즐거움에 소리를 하다보면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모두 풀리는 느낌”이라며 마냥 즐거워한다. 다드미 소리회는 오는 9월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오늘도 구성진 가락에 다드미를 두드리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멋진 결과 있기를 응원한다. 공윤자 명예시민기자

110명이 내는 드럼소리 환상

춘천드럼치는 사람들 연주회 성황



성인, 학생 등 모두 110명으로 구성된 ‘춘천 드럼치는 사람들’이 지난 8월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한 무대에 22개의 드럼을 놓고 각자 취미 활동으로 배운 실력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꾸준히 연주회를 가진 ‘춘천 드럼치는 사람들’은 지난 해 국립춘천박물관에 이어 올해 장소를 옮겨 아름다운 추억의 무대를 크게 열었다.

교단을 퇴직하고 취미로 드럼을 배운 윤청자(65) 씨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춘천생활이 즐겁고, 드럼연주회까지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행운”이라고 했다.

강사 김민영 춘천시립교향악단 타악기 상임연주자는 “내년에는 국악, 클래식, 가요, 재즈 등에 들어가는 드럼을 세분화한 연주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일본의 저명한 연주자도 초청해 춘천이 드럼축제의 도시라는 인식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문의 : 258-6633, 010-5190-5197 최영숙 명예시민기자

춘천교육청 봉사동아리 ‘아띠누리’

매월 요양기관 찾아 청소·식사 도와

춘천교육청 직원들로 조직된 봉사동아리 ‘아띠누리’는 매월 넷째주 금요일 손길이 필요한 요양기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정기 봉사활동은 춘천시 광림요양원에서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13명이 참가해 요양원 실내청소 및 노인환자 식사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4월 만들어진 ‘아띠누리’ 봉사동아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월 봉사현장을 찾고 있다.

아띠누리는 순우리말로 ‘아띠(친한친구)+누리(세상)’이다.

김양수 명예시민기자



전국장애인체전 출전 이재수선수

자신감 갖고 매일 5시간 이상 연습

장애인보치아 강원도 대표선수로 9월 있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이재수(33)선수. 대회를 앞두고 한여름에도 매일 5시간 이상 복지관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1급 중증장애를 갖고 있다.



그에게 전동휠체어는 유일한 이동수단. 남들보다 장애정도가 심하지만 장애를 딛고 선택한 보치아를 시작한지 3년이지만 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땀다.

중증장애로 직장을 구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보치아를 통하여 자신감을 얻은 그의 얼굴에서 그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긍정적인 웃음이 가득했다. 이종현 명예시민기자

보기 흉한 표지판

잡초만 무성한데 아직도 그대로

후평동 춘천기계공고 부근 사거리 모퉁이에는 ‘산불전문진화대’ 표지판이 있다. 표지판 화살표 방향을 따라 ‘산불전문진화대’ 사무실을 찾았으나 문은 닫혀 있었고, 인적이 끊긴지 오래 되었는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하루 빨리 정비하여 도시 미관도 살리고, 본래의 목적에 걸맞게 거듭 났으면 좋겠다.

권진택 명예시민기자



시민고발

아랫샘밭에서 여우고개 합류시

추돌사고 위험 불구 표지판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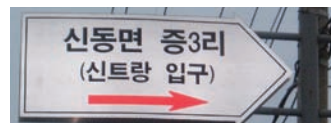
신북읍 천전리 구(舊)도로에서 여우고개로 향할 본선도로 편도 2차선의 진입을 하다보면 본선에서 여우고개로 고속 질주하는 차량과 접촉 및 추돌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곳에는 왼쪽 본선도로 합류시 주의하라는 교통표지판이 없다.

아랫샘밭 장터에서 나와 여우고개로 합류할 때 주의표지판을 세우거나 본선차량에 대한 주의나 경고판 같은 최소한의 표시판이라도 설치한다면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외지인에게도 불필요한 교통사고의 위험발생요인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본다.

황순옥 명예시민기자



어? ‘신트랑’이 뭐지?



남춘천역을 벗어나 김유정문학촌 가는 길 우측도로의 ‘신트랑’ 표지판. 춘천에

살면서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신트랑’은 신동면에 있는 어엿한 마을 이름. ‘신트랑’은 화기암(靴機岩) 즉 신틀바우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신틀은 미투리나 짚신을 삼을 때 신날을 걸어 놓는 틀이다. 이곳 주민들은 ‘신트랑’을 ‘신드랭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다소 투박하지만 정겨운 지명의 표지판을 지금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춘천에는 세련되지 않았지만 순수한 우리말로 생활과 밀접한 마을 지명이 의외로 많이 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춘천문화원 홈페이지(www.ccmunhwa.or.kr)를 방문하여 춘천자료(춘천의 지명유래)를 클릭하면 지명에 관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종현 명예시민기자

이것만은 고칩시다 |

차안에서 발 올려놓지 맙시다

찌는 듯한 불볕더위와 열대야에 지친 몸내씨 가족. 짧았던 휴가가 아쉬워 주말에 근교 계곡으로 가던 중...

이불사 몸내씨는 못 볼 걸 본 듯 영 맘이 불편하다.

옆차를 보니, 운전자 옆에 앉은 사람이 맨발을 올려 차 창 쪽에 올려 놓은 게 아닌가.

맨발을 보는 것도 그리 유쾌하지 않을뿐더러, 정작 사고발생시 얼마나 위험한 자세인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보다는 타인에게 바른 자세와 덜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춘천의

가을운동회 모습 (1979년)



“할아버지 빨리 빨리요, 우리가 1등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31년 전인 1979년 춘천 중앙초등학교 가을운동회 풍경이다.

‘부모와 함께 하는 이어달리기’에 할아버지가 나서 손녀와 손을 잡고 열심히 뛰고 있다. 평상시 입던 한복에 검정고무신 차림이 정겹다.

할아버지는 힘에 부친 듯 하면서도 손녀에 이끌려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할아버지와 손녀팀이 다른 모녀팀을 앞지르자 옆에서 구경하는 학부모들이 더 신나해 하는 표정이다.

다정다감했던 시절로 되돌아 가는 가슴이 뭉클하고 푸근해지는 추억의 사진이다.

운동장에는 청군 백군 대항 점수판이 보이고 학교 건물에는 이승복 소년이 외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글자가 크게 붙어있다.

이달의 좋은 책 |

추천 = 춘천시립도서관



꽃할머니 권윤덕 지음 - 사계절출판사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룬 그림책인 이 책은 역사의 증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인 심달연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할머니는 태평양전쟁 시기인 1940년 무렵 열세 살의 어린나이로 일본군에게 끌려가 말 못할 고초를 겪었고, 수 십 년이 흐른 뒤에야 가슴에 묻어 두었던 아픈 과거를 세상에 꺼내놓

았다. ‘한중일 공동기획 평화그림책’ 시리즈로 나온 이 책은 10월에 일본과 중국에서도 출간된다.



조선왕을 말하다 이덕일 지음 - 역사야 아침

시대와 인물을 읽어내는 뛰어난 통찰력의 소유자 이덕일 선생의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조선왕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그들에 대한 핵심 쟁점을 바로 잡고, 조선 최고의 왕과 최악의 왕이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재조명했다. 또한 여러 문헌과 실증사료를 바탕으로 조선왕들을 둘러싼 의문들을 이해하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밝혀냈다. 따라서 자신의 선택을 역사라는 거울에 비춰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독자라면 이 책이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우리동네소식통

●신사우동 지역사회봉사단원 20명은 7월14일, 주민센터에서 노인 120명에게 점심식사 대접을 포함해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중국 서안지역 청소년 문화교류단 55명은 7월19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춘천청소년들과 교류공연을 가졌다. 7월20일에는 중국 서안지역 박적학교 학생 22명이 자매학교인 대룡중학교와 교류행사를 갖고 우의를 다졌다.



●사북면 신평2리 주민들과 면사무소 직원, 육군6183부대 장병 등 360여명은 7월19일 신평2리 마을입구부터 바른골, 광산골 일원에서 고유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인 돼지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사북면 원평리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7월14일, 원평리 농촌체험관에서 1사1촌 자매결연행사를 열었다. 협약식 후 공제회 직원 30여명은 농가일손돕기와 떡메치기 체험활동을 가졌다.

●윤교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조석중씨는 7월14일, 국수 5상자(12만원 상당)를 조운동 관내 어려운 20가구에 전달했다.

●춘천시 아통장연합회는 7월30일 2010 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 홍보 및 친절한 손님맛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명동 일원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후평2동 복지위원회는 7월17일, 주민센터에서 초등생 2명에게 240만원의 장학

증서를 전달했다. 장학금은 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한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신북읍 천전감리교회는 울문리의 마노라메르카도 부부가 7월25일부터 8월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왕복항공권을 부부에게 전달했다.

●신북농협은 7월16일, 관할 3개 지역(신북읍, 사북면, 북산면)의 조합원과 어려운 가정, 복지시설 등에 '지역사랑예금'에서 수년간 모아진 잔액으로 백미 20kg 417포대(1천790만원 상당)를 각 마을 이장을 통해 전달했다.

●북산면 오항리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위원회는 7월31일, 오항1리 수청교 일원에서 '오빛돋마를 농촌관광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맨손송어잡기, 짚풀공예, 보물찾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후평동 '인공폭포상가번영회'가 주관하는 '제2회 인공폭포 모음나눔사랑잔치'가 7월23일, 인공폭포 앞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가수공연, 보디빌딩, 색소폰연주, 무술시범 등과 함께 할인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동내면 신촌3리 노인회는 7월22일, 아름다운 우리마을 가꾸자는 마음으로 백일홍, 코스모스 등 꽃묘 1,300본을 심었다.

●석사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장석순씨는 7월27일, 청구진흥두산부영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 300여명을 초청해 점심으로 냉면, 묵사발 등을 대접했다.

●춘천YMCA는 7월29일, YMCA 마당에서 지역 경로당 노인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300여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했다. 후평1동 봉사단은 음식준비에 참여했다.

●남면 한화제약은 7월29일, 남면 가정 123리 주민 120여명을 사내 식당으로 초청해 점심을 대접했다.

●사북면 '제3회 별빛산골음악회'가 7월31일, 고탄리 송화초등학교에서 재학생, 졸업생,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음악회, 영상물 상영, 노래자랑, 합창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효자2동 통장협의회와 자생단체는 8월13일, 2010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 개최 분위기 조성하고 홍보를 위해 춘천지방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거리캠페인을 전개했다.



●후평1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덕순씨는 8월7일, 어르신 80여명을 식당으로 초청, 삼계탕을 대접했다.

●사북면 문해학교는 8월10일, 원평교회에서 문해학교 재가서비스 대상 홀몸노인 50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했다.

●효자3동 통장협의회와 자생단체는 8월9일 강원대후문~팔호광장에서 2010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 성공기원 거리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북면 오탄2리는 8월13일, 오탄자연학교에서 제4회 산촌 음악회를 개최했다. 오탄2리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건강장수마을, 산촌생태마을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강원대 음악과 학생으로 구성된 현악합주단의 공연과 트럼펫 연주자, 성악가 등이 특별 출연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제8대 춘천시의회 개원



춘천시의회가 2010년 7월27일 제215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에 박근배 의원, 부의장 강청룡 의원, 운영위원장 이재수 의원, 내무위원장 이원규 의원, 산업위원장 황환주 의원을 선출하는 등 제8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한 뒤 개원식을 개최했다.

개 원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30만 춘천시민의 엄중한 부름을 받아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책임지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저와 동료의원들이 오늘 이 의정단상에 설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시민여러분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면서, 결코 편향되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개원식에서 동료의원님들과 저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서를 했습니다.

제8대 춘천시의회는 오늘 개원을 함으로서 이제 본

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합니다. 부디, 시민의 공복으로서 공·사 모두에 있어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가장 수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어, 우리 제8대 의회가 신성한 이 민의의 전당을 가장 빛낸 의회로 역사에 길이 기려지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거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난 1961년 5월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30년간이나 지방의회가 중단된 아픈 역사가 있었으나, 국민들의 끊임없는 열망과 노력으로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어언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의 세월을 인생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우리 지방의회는 바야흐로 성년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선대 의회에서 갈고 닦아 놓으신 지방자치의 소중한 이 터전을, 이제 우리의 손으로 활짝 꽃피워 보십시오.

우리 의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권과 예산의 의결권, 그리고 시정의 행정사무 및 조사의 권한과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감시·감독 하는 등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의 구성원인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모든 시민으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을 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참다운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될 때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본연의 위상을 확고히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춘천시는 전례 없는 도약의 기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숙원했던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지난해 개통되었고, 올 연말에는 경춘복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으로 우리 춘천시는 이제 사실상 수도권 도시로의 지위에 있습니다. 도시의 희망적인 비전이 활짝 열리고 있음에 따라, 굴지의 많은 기업들이 이미 우리 지역에 터전을 잡아가고 있으며, 최근의 인구증가 추세와 아파트의 분양 열기만 봐도 도시 발전 조짐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인근에서 우리 춘천만큼 아름답고 쾌적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슬기롭게 모아 갈 수만 있다면 그 어느 것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환경,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온 많은 성장 동력을 이제 모두의 힘을 아 잘 다듬어 간다면, 머지않아 우리 시는 수도권 인근에서 가장 품격 높은 명품도시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4년간의 우리 제8대 춘천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과 제5대 이광준 민선시장님의 임기 기간은, 획기

적인 도시 발전의 대 전환기로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할 일이 아주 많은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춘천시의 백년 대계를 위해, 앞으로 4년,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보다 더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언제나 “시민을 위하는 것”임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면서 잘못이 있을 때는 꾸지람도 해 주시고, 잘 했다고 판단되실 때는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8대 춘천시 의회가 참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지방자치와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많은 선대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의회의 개원식에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30만 시민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아무쪼록 “활기찬 희망으로” 기쁨이 가득하시길 충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7.27

춘천시의회 의장 박근배

바로잡습니다

춘천시보 7월호 37면 의회소식에 실린 최승재 의원 선거구는 신동면, 남산면, 남면, 강남동이 아닌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의·회·소·식

■ 제216회 임시회 개최

춘천시의회 의회 (의장 박근배)는 제21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8월4일 부터 8월10일 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올해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6건의 조례안 심의 및 다음달로 예정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춘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수)는 2010년 8월 2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8월 4일부터 8월 10일 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확정하는 등 현안 사항들에 대하여 협의했다.

■ 내무위원회 회의 개최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원규)는 제21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보고 받았다.

■ 산업위원회 회의 개최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장 황환주)는 제21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보고 받았다.

■ 총렬탑 참배



제8대 춘천시의회 당선 의원들(의장 박근배, 부의장 강청룡)은 2010년 8월 2일 총렬탑을 찾아 춘천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 산업위원회 현장 방문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장 황환주)는 2010년 8월 4일 근화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을 방문,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반 현황을 보고 받은 후 현장을 점검했다.

강습·교육

석사동 주민자치센터

- 신청기간 : 9.14~9.30
- 신청대상 : 관내·외 주민(선착순)
- 수강기간 : 10월~12월
- 수강료 : 3만원(3개월분 선납)
- ※ 65세 이상은 분기당 2만원
- (※ 도구, 재료비는 본인부담)
- 문의 : 250-3622, 261-9325

프로그램	운영일정	
기체조	수,금	10:00~11:00
벨리댄스	화	10:00~12:00
필라테스	화	14:00~15:00
	수	13:30~14:30
요가교실1	수	14:40~15:40
	금	14:00~15:00
요가교실2	수	15:50~16:50
	금	15:10~16:10
라틴댄스	월,목	10:00~11:00
모던댄스	월,목	11:00~12:00
기타교실(초급)	금	16:30~18:30
기타교실(중급)	금	19:00~21:00
민요교실	목	14:00~17:00
노래교실	월	14:00~16:00

효자2동 주민자치센터

- 운영기간 : 10.1~12.31(3개월)
- 접수기간 : 9.27~10.1
- (효자2동주민 1순위:9.27~9.28, 타동주민 2순위:9.29~)
- 수강료 : 3만원(3개월분 선납).
- 단, 2과목 신청시 5만원, 만65세 이상 무료
- 문의 : 250-3620, 254-6111

프로그램	요일	시간
노래교실	수,금	10:00~12:00
무료 실버 댄스스포츠	화,금	11:30~12:30
기초댄스스포츠	화,금	09:30~11:30
요가	월	15:00~16:00
	수,금	14:00~15:00
탁구(오전)	월,목	09:30~11:30
탁구(오후)	월	13:00~14:30
	목	14:00~16:30
민요	화,목	10:00~12:00

춘천YWCA여성인력개발센터

- 과정명 : 피부미용사/요리전문가(한식)/플로리스트(이상 계좌제), PC정비사2급, 엑셀·파

워포인트,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제과제빵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부동산경매상담사, 실내원예조경사3급

- 문의 : 243-6474
- (석사동 소재, 도여성가족연구원)
- ※ 수강료, 개강일, 시간 등은 전화나 홈페이지(www.ccwomen.or.kr) 참조

응급처치 심폐소생 무료교육

- 대상 : 지역주민 및 방송대상
- 교육일시 : 9.1~11.3(10~12시) 주1회
- 문의 : 한국방송통신대(240-6619)

기업재직자 국비무료교육

- 과정 :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건설기계조종, 컴퓨터그래픽스 등
- 문의 : 한국폴리텍Ⅲ대학(250-9710~6)

춘천YWCA 교육

- 대상 : 55세 이하 여성
- 교육 : ▲베이비시터(8.30~9.10/13~17시) 6만원 ▲산모도우미 무료교육(9.6~9.10 09~18시) ▲가사도우미양성 무료교육(9.13~9.16/13~17시) ▲이밖에 몸찬양, 성전꽃꽂이교육도 있음
- 문의 : 춘천YWCA(도청아래) 254-4878

생활체육교실 강습

- 강습기간 : 9월~11월(시민 누구나)
- 접수기간 : 8월26일부터
- 문의 : 264-5750

종 목	요일/시간	장 소
탁구	화목금/14~16시	국민생활관
인라인스케이트	화수금/10~12시	수변공원
배드민턴	수목금/14:30~16시	국민생활관
스쿼시	화수금/10~12시	스포렉스
볼링	월수금/10~12시	CC볼링장
헬스	월수금/10~12시	한림성심대

시립도서관 인문학 강좌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

- 일시 : 9.2~9.30 (매주 목/19~21시)
- 장소 : 시립도서관 2층 회의실
- 강사 : 김진목 (음악평론가)
- 문의 : 춘천시립도서관(250-3575)

무료 기초영어교실

- 대상 : 알파벳, 파닉스 및 기초생활영어 습득 희망자

- 접수 및 개강 : 8월30일(월)오전10시
- 입회비 : 1만원
- 문의 : 강원여성자원봉사단(242-2542)

일반음식점 신규위생교육

- 교육일 : 11월 3일
- 교육장소 : 삼천동 도체육회관예식장
- 교육문의 : 시보건소 식품의약과 (250-3323)

신청·모집

2010하반기 춘천시 애항장학생 신청

- 접수기간 : 8.30~9.7
- 선발인원 : 150여명(통리반장 자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정유공자 자녀 또는 본인, 매립장주변 자녀)
- 지급액 : 대학생 100만원, 고교생 50만원
- 선발방법 : 춘천시애항장학회 심의·확정

- 상세문의 : 시청 총무과(250-3826)

가·구·美사업 참여신청

- ♣ 우리동네 골목길, 우리마을 작은공터를 아름답게 가꿀 2011년 춘천 가·구·美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8월 31일까지
- 내용 : 자율참여로 수목, 초화류 식재관리
- 지원내용 : 야생 초화류(읍면지역), 수목(동지역)지원
- 신청안내 : 시청 경관과(250-3134)

동내도서관 교육신청(250-3468)

〈자녀교육 부모아카데미〉

- 일정 : 9월초~12월초(매주 수/10~12시)
- 강사 : 박민수(전 춘천교대총장, 현 창조성계발연구소장)

〈행복한 책읽기 중학생회원〉

- 일정 : 9월~12월말 (매주 일/16시~17:30)
 - 강사 : 이정배 (수필가, 문학박사)
- ### 안전한 발급위한 인감보호신청
- 특별신청기간 : 7.12~10.10
 - 내용 : ‘본인의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것. (문자전송서비스도 실시중)
 - 문의 : 시청 민원지적과(250-3243)
- ### 고용우수기업 인증신청
- 개요 : 2010.5.31 기준 6개월간 일정 기준이상 일자리성장 이룬 기업

- 지원규모 : 50개 기업
(기업당 최대 2천500만원)

※제조업, 전자통신IT분야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 문의 :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49-3304, 3306)

201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 신청기간 : 8.24~9.2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조사기간 : 11. 1~11.15
- 조사요원 : 총680명(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일괄 신청받아 읍면동에서 구분채용)
- 채용일수 : 총관리자 44일,
조사관리자 38일, 조사원 16일
- 수당단가 : 1일당 총관리자 46,710원,
조사관리자 44,690원, 조사원 42,660원
- 문의 : 시청 통계계
(250-3214, 3024, 3031)

강원여성대학 무료교육생 모집

- 접수기간 : 8월 31일까지
- 교육기간 : 9.2~11.30(화목10~12시)
- 교육대상 : 시 거주 여성(선착순 40명)
- 문의 : 시청 여성가족과(250-4218)

영농정착 기술교육생 모집

- 추가모집기간 : 8.10~8.31(20명 선착순)
- 교육대상 : 귀농·귀촌 희망자 및
신규 귀농인
- 교육기간 : 9월 매주 토(10~16시)
- 신청 : 춘천시농업기술센터(250-3583)

프로그램참여 어르신 모집

- 대상 : 장기요양등급 2,3등급 어르신,
65세 이상 일반 어르신
- 프로그램 : 노인보건체조, 종이접기,
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 요가, 이마용 서비스,
물리치료, 건강체크 등
- 문의 : 월드비전노인주간보호센터
(254-7244)

월드비전정보화센터 수강생 모집

- 과목 : 포토샵기초반(CS3), 인터넷활용 및 문서작성법, 컴퓨터기초, 인터넷 등
- 대상 : 50세 이상 주민(수시모집)
- 등록금 : 월3만원
- 문의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254-2271)

노인일자리 추가모집

- 대상 : 만60세 이상 59명(단, 타기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기초생활수급

- 자 제외)
 - 활동내용 : 노인요양시설 파견도우미(말벗지원), EM비누제작판매, 경주파(경비원,주유원,가정도우미)활동
 - 활동급여 : 20만원 내외(주2~3일근무, 1일4~6시간), 경주파사업 급여는 수요처와 별도 협의
 - 문의 : 춘천시니어클럽(256-3005, 7005)
- ## 춘천문학여행 참가자 모집 '아베의 가족을 찾아서'
- 일시 : 9.16(목) 소요 4시간
 - 코스 : 인람리→오솔길→가일리
또는 원평리 호반길
 - 문의 : 춘천시립도서관(250-3575)

보건·기관

비만·고혈압 클리닉

- 운영기간 : 9.6~10.29(선착순 100명)
- 대상 : 20세이상 성인으로 과체중및
비만(BMI 25이상)인 자
- ※ BMI(체질량지수) : 체중(kg)/신장(m)²
- 문의 : 춘천시보건소
(259-1881, 1827)

행복한 출산교실

- 기간 : 10.8~11.12(매주 금/15~17시)
- 신청접수 : 8월 30일부터~
- 문의 : 춘천시보건소
(259-1813, 250-3993)

모유 수유교실

- 기간 : 10.8~11.12(매주 금/13시~14:40)
- 신청접수 : 8월 30일부터~
- 문의 : 춘천시보건소
(259-1813, 250-3993)

아기 마사지교실

- 일시 : 9.16, 10.14, 11.18(10시~10:30)
- 대상 : 3개월~18개월 영유아(25명)
- 신청접수 : 8월 30일부터~
- 문의 : 춘천시보건소
(259-1813, 250-3993)

출산후 여성 무료상담

- 상담일시 : 월~금(10~16시)
- 상담장소 : 춘천시정신보건센터
- 대상 : 출산 후 우울감을 느끼는 여성
- 문의 : 244-7574, 241-4256

개인총기류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

- 점검기간 : 8.16~10.15(2개월간)
- 점검장소 : 주소지 관할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 점검대상 : 전체 공기총
(5.5mm단탄 제외) 및 공기권총, 마취총
- 임시영치기간 : 점검직후~11월12일
G20행사 종료시

- 문의 : 춘천경찰서 (255-5000)

희망의전화 '129'

- '희망의전화 129'는 보건복지관련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만 누르시면 시내통화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민생안정지원,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긴급지원에 이르기까지 도움과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031-389-7313)

2010 춘천월드인라인컵 마라톤대회 우회도로 운행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0.9.5(일) 07:30~12:00
- 대회구간 : 공치천교~온의사거리~
칠전대우아파트~춘천댐~소양2교~근
화동뱃터~공치천교
- 참가인원 : 5,000명
(세계엘리트선수 100명 포함)
- 문의 : 월드레저 조직위(250-4313)

개별공시지가 열람

- 열람기간 : 9.6~9.30
- 열람장소 :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열람내용 : 2010.1.1~6.30일사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필지의 지번별 m²당 가격
- 의견제출 문의 : 시청 민원지적과
(250-3801, 3812, 3814)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 기간 : 8.16~10.31까지
- 대상 : 시내 450가구, 900명 가구원
- 위탁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문의 : 춘천시보건소(250-4552)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 공개

- 공개내용 : 문제는행식 총 952문항
- 개시일 : 2010.8.25(수)부터
- 문의 : 운전면허시험장(241-6001)



2010 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0 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 개막식

■ 일 시 8월 28일(토) 18:30~21:30

■ 장 소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 주 제 Shoot the star

■ 축하공연 주출연자
브라운 아이드 걸스, 빅뱅, 2PM, 2NE1 등
※ 관람객 입장시간 : 17:00까지



식전행사

01

18:30~19:30 (60')

- 웰컴 퍼포먼스
 - 특전사 고공낙하
 - 동력패러글라이딩
 - 객석 뺨에로 공연
 - 춘천연합 풍물패
- 치어공연 및 응원전
 - 전국대학연합응원단
- 행사 타이틀 영상



공식행사

02

19:30~20:40 (70')

- 개회선언
- 테마 퍼포먼스 1
 -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
 - “물”의 요정 환영
 - 별의 탄생 빛을 발하다
- Shoot the Star 세레머니



식후행사

03

20:40~21:30 (50')

- 테마 퍼포먼스 2
 - 자연과 사람이 레저로 어우러지다
- 별들의 향연
 - 세상을 깨우다(축하공연)
- 불꽃놀이

